기술 2020-282

2020.11.26.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텔콘RF제약(200230)

통신장비

요 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 성 기 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 성 자	구완서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TEL.02-3215-265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텔콘RF제약(200230)

Global Network 기반산업의 중심이 되기 노력하는 무선 통신업체

기업정보(2020/11/20 기준)	
대표자	김지훈
설립일자	1999년 01월 08일
상장일자	2014년 11월 24일
기업규모	중기업
업종분류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요제품	RF 통신부품(커넥터 등), 완제의약품

시세정보(2020/11/20 기준)	
현재가(원)	6,410
액면가(원)	100
시가총액(억 원)	5,311
발행주식수	85,387,382
52주 최고가(원)	12,250
52주 최저가(원)	3,150
외국인지분율	7.57
주요주주	㈜한일진공(대표자 이청균) 외

■ RF커넥터 전문 기업, 제약 바이오 분야로 사업 다각화

주식회사 텔콘RF제약(TELCON RF PHARMACEUTICAL. Inc.)은 1999년 01월 08일 설립되었고, 201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통신장비의 제조(주로 기지국 구축)에 쓰이는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사업 영위하고 있다.

통신사업 분야에서 동사는 기초 RF 동축 커넥터와 케이블 조립체 외에 동축 커플러, 동축 분배기, 동축 어레스터 등 여러 특화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최고의 RF 동축 커넥터를 개발, 제조, 판매한다는 목표로 항상 고객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삼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품질개선, 공정개선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의 RF Connectivity 기술은 이동통신 RF 부품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것 중의 하나로 고주파 신호의 전송을 손실 없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 초정밀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High-Tech 분야다.

■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신규사업

1) RF사업 부문 : 동사는 기타 무선 통신장비제조에 쓰이는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RF부문의 신규사업으로는 광 사업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향후 광전복합 커넥터 외 광케이블 어셈블리 공급을 통한 광 솔루션 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5G 관련 차세대 기지국 핵심 기술인 FTTA(Fiber-To-The Antenna) Solution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의 leader로 발돋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제약·바이오사업 부문 : 액제 K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을 보유해 액상 제형의 제품과 타정, 환제, 캡슐 등의 다양한 제형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외주생산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약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순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411.5	37.90	-127.1	-30.88	-204.7	-49.74	-19.05	-12.48	58.87	-255	1,481	-	10.06
2018	577.1	40.24	-78.7	-13.65	-151.7	-26.29	-10.51	-7.75	16.95	-179	1,871	-	4.43
2019	565.9	-1.94	30.0	5.29	-528.0	-93.30	-39.28	-33.69	14.19	-635	1,337	-	3.63

기업경쟁력

기술경영

■ 특허권 31건 등록 이력 보유
(안테나 장치, 평면 접촉형 알에프 단자 등)
■ 자체연구개발 실적 30건 보유

유망사업 추진

■ 광 솔루션 업체 도약 준비 및 COVID-19 치료제
향후 광케이블 어셈블리 공급 : 광 솔루션 업체 도약 준비
■ COVID-19 치료제 : 국내 · 필리핀 판권계약 완료함.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RF 사업 부문
(1) Multi port RF cable assembly
(2) STBM Connectors
(3) mmWAVE Connectors
(4) Push Pull Optical connectors
(5) Point Of Interface
(6) 3.6GHz 2, 3, 4Way 분배장치(인빌딩 공사용 자재)
(7) New HTTA solution(5G 기지국 설치용 HTTA)
(8) 5G Passive Module(5G 인빌딩 공사용 설치 자재)
(9) High Frequency 용 Connector

주요제품

Connector	Cable Assembly
Component	Fiber optic

2020년 상반기 기준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 (단위 : 백만 원, %)

품목		매출액	비중
RF 부문	Cable Assembly	761	4.98
	Connector	2,604	17.03
	기타	5,145	33.66
제약 바이오 부문	알지셀	205	1.34
	거드액	660	4.32
	기타	5,912	38.67
합계		15,287	100.00

시장경쟁력

기술력을 통한 고객 다양화

■ 고객사 맞춤형 통신장비 제품 개발 및 공급
■ 최적화된 케이블 어셈블리 시스템 구축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 제공
■ 지식재산권 확보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장벽 구축

주요 고객사

세계 이동통신 시장규모 및 전망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815.4백만 달러	연평균 : 89.0% 성장 전망 (출처 : Gartne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년	1,359.4백만 달러	

최근 변동사항

기술 고도화 및 COVID-19 치료제

■ 5G, 6G 투자계획 발표에 따른 동사 수요 확대 전망
(1)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 2025년까지 총 38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휴머니젠과 COVID-19 치료제 국내 · 필리핀 판권계약
(1) 렌질루맙 국내 · 필리핀 판권계약완료
(2)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
➜ 미국/브라질 임상 3상 진행 중
NIH(미국국립보건원)
ACTIV-5 / Big Effect Trial 진행 중

Ⅰ. 기업현황

RF커넥터 전문 기업, 제약 바이오 분야로 사업 다각화

동사는 1999년 01월 08일 설립되었으며, 기초 RF 동축 커넥터와 케이블 조립체 외에 동축 커플러, 동축 분배기, 동축 어레스터 등 여러 특화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최고의 RF 동축 커넥터를 개발, 제조, 판매한다는 목표로 항상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품질개선, 공정개선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요

주식회사 텔콘RF제약(TELCON RF PHARMACEUTICAL. Inc.)(이하 '동사')은 1999년 01월 08일 설립되었고, 201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통신장비의 제조(주로 기지국 구축)에 쓰이는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사업 영위 중인 2019년 말 기준 총자산 131,648백만 원, 자기자본 115,286백만 원(납입자본금 8,528백만 원) 규모의 중기업이며, 2020년 6월 30일 기준 1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는 설립 이후 커넥터, 케이블 어셈블리 및 컴포넌트 등 무선 중계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줄곧 주력사업 부문으로 영위해 왔으며, 이는 RRH(Remote Radio Head), ANTENNA 및 RF 장비 등과 같은 이동통신을 위한 기지국 구축 등의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1999년 1월 RF 전문 무선통신업체인 케이엠더블유에서 분사하여 RF 동축 커넥터 및 동축케이블 조립체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0년대 초반 산업 무선통신 시스템용 피뢰기 개발을 시작으로 RF 커넥터 외 Passive Components(Coupler, Splitter)류에 대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 모듈을 개발하여 양산체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DU(Digital Unit) 집중화와 unit 개발 및 양산체제 구축, POI 및 인 빌딩용 컴포넌트를 개발을 완료하여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사업 부문 소개

*출처: 텔콘RF제약 홈페이지(http://www.telcon.co.kr/)

통신사업 분야에서 동사는 기초 RF 동축 커넥터와 케이블 조립체 외에 동축 커플러, 동축 분배기, 동축 어레스터 등 여러 특화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최고의 RF 동축 커넥터를 개발, 제조, 판매한다는 목표로 항상 고객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삼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품질개선, 공정개선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가 주력하는 RF Connectivity 기술은 이동통신 RF 부품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것 중의 하나로 전원과 기기 등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거나 기기 내부 단위를 간단히 조립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고주파 신호의 전송을 손실 없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 초정밀기술이 집약된 High-Tech 분야다.

동사는 종속회사를 통해 제약 바이오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국내 200여 개 제약사 가운데 액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곳은 20여 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KGMP)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액상 제형의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타정 · 환제 · 캡슐 등 여러 가지 제형의 제품생산이 가능하여 다양한 정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R&D) 역량을 통해 국내 제약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계회사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사는 지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4개사이며, 종속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동사의 계열회사는 총 6개사이다.

[표 1] 종속회사 및 주요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종속회사	설립일	소재지	주요 사업
Xian Detong Electronic Technology Inc.	2013.05	중국	무선통신 부품제조
TELCON VINA	2017.05	베트남	무선통신장비 제조 및 가공
(주)중원바이오팜	2000.09	충남 천안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주)텔콘파트너스	2017.02	경기도 용인	경영 컨설팅업

계열회사	지분율	상장 여부
Xian Detong Electronic Technology Inc.	100.00%	비상장
TELCON VINA CO.LTD	100.00%	비상장
(주)중원바이오팜	56.33%	비상장
(주)텔콘파트너스	100.00%	비상장
(주)한일진공	-	코스닥상장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비상장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대표이사 정보

대표이사 김지훈(1970년생, 남)은 (주)텔콘파트너스(2017년~, 최종직위:대표이사),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2017년~, 최종직위:대표이사), (주)케이피엠테크(2018년~, 최종직위:대표이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11월부터 동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기술의 시장 및 수요분석을 진행하여 주력사업

을 위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목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활발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한일진공	최대주주	보통주	7,265,180	8.51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노력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를 2017년 0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말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내 18명의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R&D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꾸준한 역량 집중을 통해 주력사업 관련하여 다수의 지식재산권(특허권 31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0건, 상표권 4건)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기술의 보호, 판매와 관련된 사업 보완적 수단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보유 지식재산권의 효과를 모방하기는 어렵고 실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바, 사업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사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 동사의 주요 제품

동사는 RRH, ANTENNA 및 RF 장비 등 네트워크 장비 분야 제품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RF 부문에서는 커넥터(Connector), 케이블 어셈블리(Cable Assembly) 및 컴포넌트(Component)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액상, 타정, 환제, 캡슐 제형 등의 제품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는 알지셀, 거드액, 리바맥스 현탁액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표 3] 제품 유형별 매출 추이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 상반기		2019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RF 부문	Cable Assembly	761	4.98	3,694	6.53	16,375	28.38
	Connector	2,604	17.03	21.036	37.17	14,427	25.00
	기타	5,145	33.66	17,704	31.28	15,174	26.29
부문 계		8,510	55.67	42,434	74.98	45,976	79.67
제약 바이오 부문	알지셀	205	1.34	525	0.93	325	0.56
	거드액	660	4.32	1,507	2.66	1,518	2.63
	기타	5,912	38.67	12,124	21.42	9,889	17.14
부문 계		6,777	44.33	14,156	25.02	11,732	20.33
총매출액		15,287	100.00	56,590	100.00	57,708	100.00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Ⅱ. 시장 동향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5G 및 의약품 시장

동사의 주요 제품인 RF/광커넥터가 포함된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9.0%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RF 사업 부문 시장 동향(5G 본격 시행으로 급속한 성장 전망)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RF/광커넥터 시장으로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1G(아날로그)와 2G(CDMA) 및 3G(W-CDMA)를 거쳐 4G(LTE)로 진화하였으며 현재는 최대 속도가 LTE의 20배(20Gbps)에 달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IMT-2020) 서비스가 상용화 실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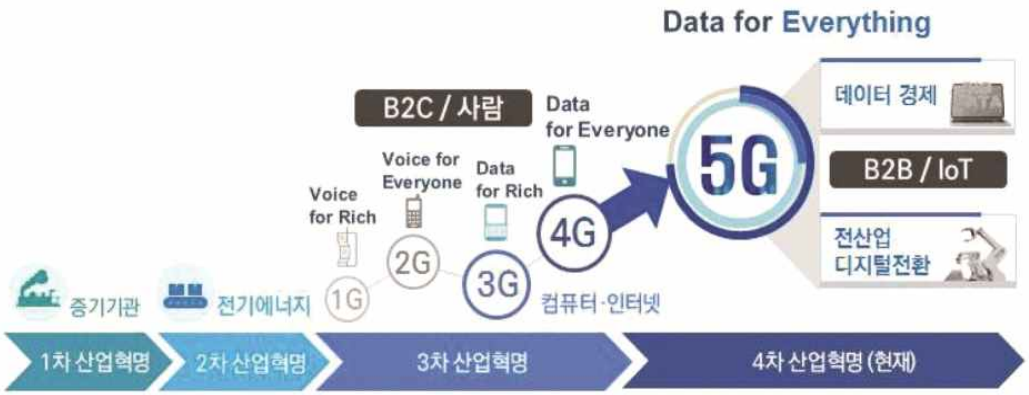
동사의 RF 사업 부문은 RRH, ANTENNA 및 RF 장비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 적용되는 제품인 커넥터, 케이블 어셈블리 및 컴포넌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 부문으로 RF 부품은 2.5G, 3G, 4G, 5G의 세대진화가 될수록 더욱 고기능, 멀티화 되는 사양을 감당하면서 경량화, 간소화 그리고 RF 부품의 모듈화 및 고집적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즉 RF 부품의 모듈화 추세로 인해서 이동통신 단말에서의 RF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동통신 단말의 Multi 밴드화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글로벌 시장의 2G, 3G, 4G, 5G의 다양한 스펙트럼 존재로 인해서 완만한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다.

최초의 이동통신서비스가 오직 음성만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2G에 이르러서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도화, 비용의 저렴화, 수용 용량의 증가 등의 장점이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음성은 물론이고 간단한 단문 메시지(SMS)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그 결과 현재는 실시간 고화질(HD)방송, 대용량 네트워크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4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2]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출처: 5G 연관산업 생태계 현황 및 시장 전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용화 단계로 접어든 5G(IMT-2020)의 경우, 2G(CDMA), 3G(WCDMA), 4G(LTE)가 휴대전화기와 연결하는 통신망에 불과했던 반면 휴대전화기의 영역을 넘어 모든 전자 기기를 연결하는 기술로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스마트 공장, 원격의료, 무인 배달, 클라우드·스트리밍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포괄하는 기지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과거 2G부터 현재 5G로 통신망이 고도화될 때마다 기지국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가 교체되어야 하고, 이는 이동통신 장비 업체에 있어서 대규모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5G 이동통신 산업은 통신서비스, 단말기, 기지국 장비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차, 제조업, 헬스케어, 공공안전, 미디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5G 시장은 성장 정체 위기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대응 중이다.

[표 4] 세계 및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세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CAGR '18~'23	점유율
5G	612.9	2,161.5	4,048.3	6,639.8	10,581.8	14,794.2	89.0%	37.5%
2G	1,503.1	691.6	399.7	280.4	221.8	158.3	-36.2%	0.4%
3G	5,578.4	3,664.7	2,426.1	1,533.5	1,019.9	776.5	-32.6%	2.0%
4G	20,454.7	19,240.9	18,113.3	16,198.5	14,003.3	11,448.8	-11.0%	29.0%
소형셀 기지국	4,785.6	5,334.4	5,761.5	6,365.9	6,733.7	6,864.8	7.5%	17.4%
교환기	4,599.0	4,600.9	4,739.7	4,958.1	5,165.9	5,393.1	3.2%	13.7%
전체	37,533.6	35,694.1	35,488.6	35,976.2	37,726.4	39,435.8	1.0%	100.0%

국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성장률 (CAGR : 18년~23년)
5G	615.6	815.4	952.8	1,150.2	1,277.6	1,359.4	17.2%

세계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CAGR : 18년~23년) : **89.0%**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CAGR : 18년~23년) : **17.2%**

*출처: Gartner, 정보통신정책연구원(5G 연관 산업 생태계 현황 및 시장전망),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과거 통신장비 시장은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 중심의 시장으로 양분되어 업체 간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았으나, 최근 세계 최대의 시장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까지 갖춘 중국의 Huawei나 ZTE 등의 장비 업체 등장으로 인하여 과거 High-end 시장을 석권하였던 Ericsson, Alcatel-Lucent, Nokia 등의 메이저 장비 업체 또한 제품의 원가절감에 의한 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연구개발의 축 또한 과거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신흥 시장인 중국으로 이동하는 등 제품 개발 및 생산의 중국 현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4월 세계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5G 가입자 추이는 134만 명(19년 6월) → 398만 명(19년 10월) → 537만 명(20년 2월) → 734만 명(20년 6월)으로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동사의 주요 제품인 RF/광커넥터가 포함된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세계 시장규모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2018년부터 연평균 1.0%씩 성장하여 2023년에 39,435.8백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5G 네트워크 장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9.0%로 대폭 성장하며, 2023년 기준 이동통신 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인 3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시장규모는 선도적인 5G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성장률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부터 연평균 17.2% 증가하여 2023년에 1,359.4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제약・바이오사업 부문 시장 동향

제약 산업은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산업으로 타 산업과는 구별되며, 정밀화학공업의 일종으로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 집약형・연구 개발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제약 산업은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제품 및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비용 및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타 업종과 비교하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수백여 개의 국내 제약사들과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 증가로 타 산업과 비교하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품질 경쟁력이 약한 제네릭(Generic, 화학 합성의약품의 복제 약) 위주의 회사와 마케팅 중심의 중소업체 등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원료 수입의존도는 상당히 높으며, 환율에 따른 수익성 변동요인이 큰 편이다. 더구나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자사 제품 수입증가로 의약품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전체 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의약품 시장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약시장의 촉진요인으로는, 국내 업체의 풍부한 영업 인력과 판매 경험, 유통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의 산업기반이 유지되고 있고, 국내 업체의 뛰어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수입 핵심원료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며, 기존 품목을 개량한 완전 의약품 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타 산업 기업과 비교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 저해요인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아 업체 간 경쟁 강도가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의약품 기업대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낮은 수준이고, 완제 의약품의 국내 자급도가 낮은 점은 저해요인이다. 또한, 해외 의약품 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 기존 등재 의약품 평가제도 시행 등은 의약품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무렵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하였고, 세계 의약품 시장은 최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증대 및 생활 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제약 산업은 상위제약업체와 다국적 제약업체, 중소제약업체 등 약 800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의 시장참여로 공급과잉상태 및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 내 유한양행이 시장점유율 9.4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녹십자, 종근당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들이 확대된 가운데 상장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외형은 크게 확대됐지만,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제약 산업은 고령화 인구 및 만성질환의 자연증가로 의약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보와 이에 따른 기술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 전망된다.

2020년에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 및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유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 등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국가별 의약품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미국은 484.9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유럽, 중국을 비롯한 파머징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파머징(Pharmerging)은 제약을 뜻하는 '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제약 산업 신흥시장을 의미한다.

[그림 3] 지역별/국가별 의약품 시장현황 및 전망

*출처: IMS Health,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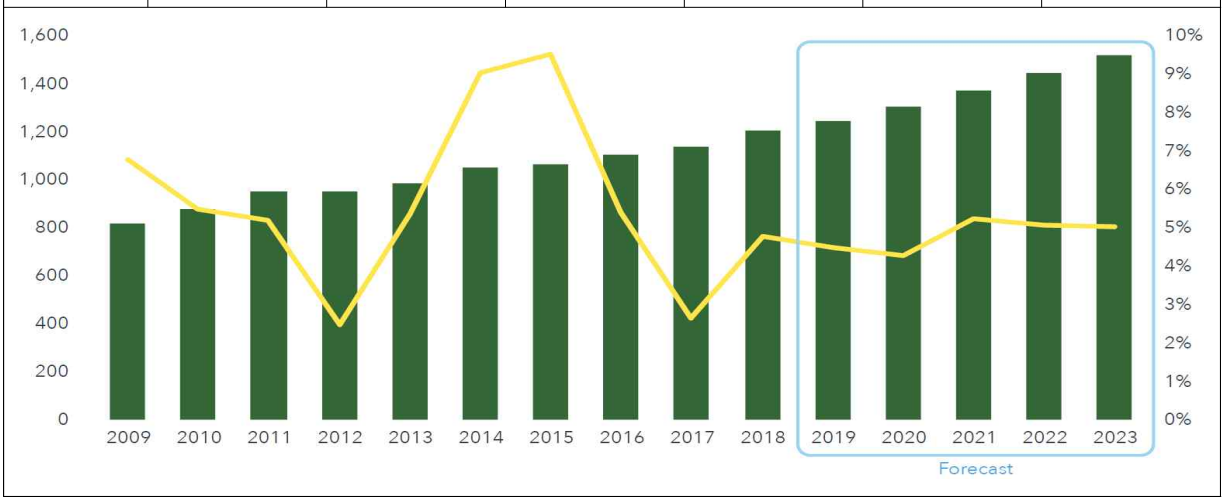
IQVIA(2019년 1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의약품 시장은 12,048백만 달러(한화 약 1,395조 원) 규모로 이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에는 15,959백만 달러(한화 약 1,7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의 증가 등으로 점차 세계적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조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신약들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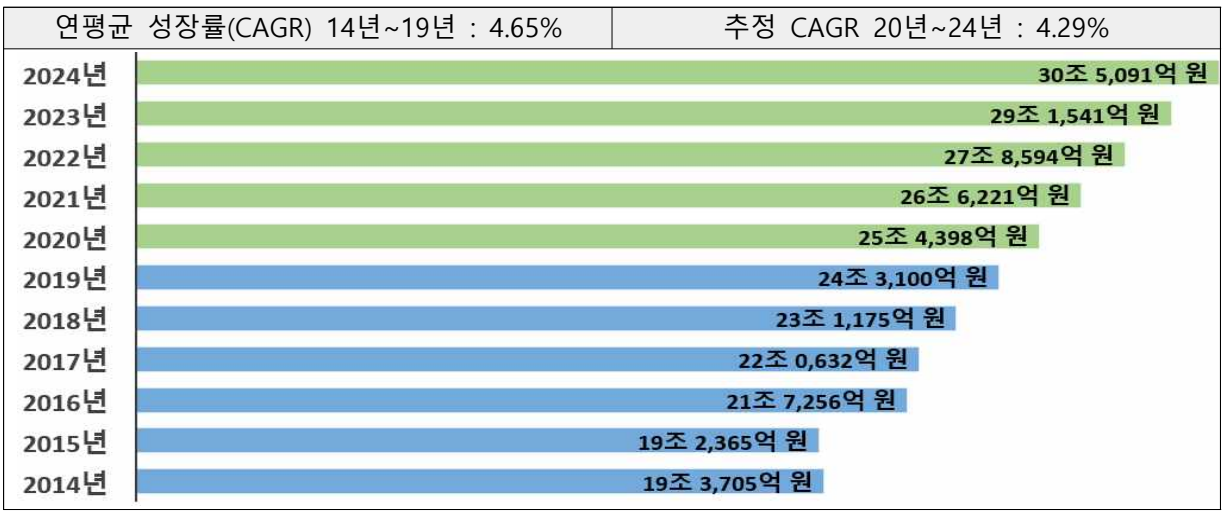
연평균 성장률(CAGR) 13년~18년 : 4.65%				추정 CAGR 19년~23년 : 4.29%		
연도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9,099	10,529	12,048	14,263	15,087	15,959



*출처: The Global Use of Medicine in 2019 and Outlook to 2023, IQVIA(2019),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2018년(23조 1,175억 원) 대비 5.2% 증가한 24조 3,100억 원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이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표 6]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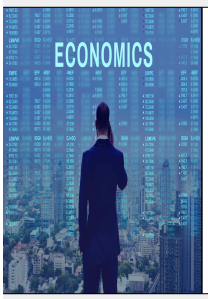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19 제약 산업 데이터 북),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은 22조 3,132억 원으로 2018년(21조 1,054억 원) 대비 5.7%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7.1% 성장하여 전체 제조업 성장률(2.4%)의 3배에 달하였다. 지난해 생산실적은 완제의약품 19조 8,425억 원(전체의 88.9%), 원료의약품 2조 4,706억 원(전체의 11.1%)으로, 국내 의약품 생산에서 완제의약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의 생산액은 16조 6,18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80%대 이상의 생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 수출액은 51억 95백만 달러로 2018년(46억 73백만 달러)에 비해 11.2%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2%로 높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5억 75백만 달러)에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뒤를 이어 독일(5억 71백만 달러), 미국(5억 29백만 달러) 순이었다. 2019년 의약 외 약품 생산실적은 1조 6,574억 원으로 2018년(1조 4,473억 원) 대비 14.5% 증가하여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7] 의약품 산업 거시환경(PEST) 분석

정치/법규(Political)	
	▶ 국가 정책적으로 유망산업으로 지원 ▶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 제약 산업 특화 펀드 조성 ▶ 국가전략기술 지정 중점기술 집중 개발 등 맞춤형 신약개발 지원
거시/미시경제(Economic)	
	▶ FTA 영향으로 해외기업 국내 진출 ▶ 구조, 타겟의 다양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 ▶ 건강 보험 재정 절감 요구에 따른 약가 우대 정책 ▶ 세계수준의 대규모 GMP시설 보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 의약분업 이후 해외 주요 기업들이 국내 제약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확대하여 국내 의약품 산업위축
사회/문화(Social-Cultural)	
	▶ 저렴한 항체 의약품에 대한 시장 요구 증가 ▶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난치성 질환 증가 ▶ 글로벌 대형 제약기업의 성장
기술/정보(Technological)	
	▶ 맞춤형 치료제로서의 기술 수요 증가 ▶ 선진국의 핵심 기술 및 원천특허 보유 ▶ IT, NT, BT 등의 관련 기술과의 융복합 ▶ 천연물 의약품의 경우 복합제 메커니즘 규명의 한계 ▶ 바이오 시밀러의 다국적기업과 기술 제휴 및 신약 허가/발매로 바이오 의약품 기술경쟁력 상향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Ⅲ. 기술분석

꾸준한 연구개발 및 사업 다각화로 기술경쟁력 확보

동사는 설립 이래 업계의 선두가 되기 위해 ICT 산업의 핵심인 무선통신 부품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 기술 개선 프로젝트, 새로운 시장 선도 기술 프로젝트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 내부 R&D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 RF 사업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통신 기술 개요

과거 2G부터 3G까지의 이동통신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의 시작점을 제공하였던 반면 4G 이동통신에서는 본격적인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 서비스로의 큰 변화를 이루었다. 최근 콘텐츠별 무선 트래픽을 보면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유선 통신에서만 제공 가능했던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된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패턴의 변화는 무선 네트워크가 3G에서 4G로 진화함으로써 전송 속도가 급속도로 향상되었고,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 통신망의 진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본격화, IoT 서비스 확산 등의 변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무선 데이터 트래픽 발생 및 스마트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선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사용자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선 인프라를 넘어서는 새로운 무선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넓은 대역폭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기반의 5세대 이동통신 RF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밀리미터파 무선 송수신 시스템은 주파수 대역이 30~300GHz이며, 파장이 1~10mm인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다. 밀리미터파 통신을 위한 무선 송수신 시스템은 크게 RF 전치단(Front End Module, FEM), RF 송수신기(Transceiver),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다.

RF 전치단은 송신단의 전력 증폭기(Power Amplifier, PA), 수신단의 저 잡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 LNA), Tx/Rx 스위치 및 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RF 송수신기는 혼합기(Mixer), 발진기(Local Oscillator, LO), 필터 등을 포함한다.

■ 고주파 신호의 전송을 손실 없이 가능하게 하는 초정밀기술 확보

동사는 설립 이래 업계의 선두가 되기 위해 ICT 산업의 핵심인 무선통신 부품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동사는 무선망 구축, 통신시스템, 군 통신장비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기술력으로 업계를 선도해 왔으며, 가스와 염분 등으로부터 통신용 커넥터의 부식을 막는 도금과 정밀 가공 기술은 동사의 핵심 기술이다.

동사는 설계, 부품, 제조, 시장 등 엄격한 4대 품질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선 동축 커넥터와 계측용, 광산용 케이블 어셈블리 시스템 등 다양한 인터커넥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용 커넥터와 점퍼케이블, 신호를 분리하는 스플리터(Splitter), 결합/분리하는 커플러(Coupler), 낙뢰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어레스터(Arrester) 등 효율적인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제품을 국내/외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망 장비 부품으로 각종 컴포넌트와 3천여 종의 소형 커넥터를 제작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계측용 장비의 호환성을 연결해주는 동축 어댑터(Coaxial Adaptor)는 330가지 이상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250여 종의 신호를 종단시켜주는 더미로드(Dummy Load)와 통신시스템에서 특정 주파수의 노이즈를 감쇄시키는 280 여종의 어테뉴에이터(Attenuator) 등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폭넓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표 8] 주요 제품

Connector	Cable Assembly	Component	Fiber optic

*출처: 텔콘RF제약 RF 사업 부문 홈페이지(http://www.telcon-rf.com/)

(1) 다양한 수요와 변화로부터 차별화된 제품 - 커넥터(Connector)

동사는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의 다양한 수요와 변화로부터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입/출력 Port 용, Board to Board, 케이블 어셈블리용, Board to Mount 용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RF 동축 커넥터의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2) 최적화된 케이블 어셈블리 시스템 구축 – 케이블 어셈블리(Cable Assembly)

동사는 초소형 케이블부터 급전선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 분야 및 계측용, 방산용 등 최적화된 케이블 어셈블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3)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 제공 - 컴포넌트(Component)

동사는 다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Wide Band 설계기술 및 PIMD 열화 방지 기술을 보유하여 시스템의 전력 및 신호 운용 상태를 Monitor 하는 Coupler, 낙뢰로부터 인명과 장비를 보호하는 Arrestor, 일정 전력을 균등, 비균등으로 분배하는 Splitter 등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4)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 파이버 옵틱스(Fiber optic)

MOC(방수형 다중 광커넥터), HCC(방수형 광전 복합커넥터)는 RRH(Remote Radio Head)와 같은 소형 중계기의 전원공급 및 송수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동사는 설치환경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하면 동사가 주력으로 하는 RF Connectivity 기술은 이동통신 RF 부품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전원과 기기 등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거나 기기 내부 단위를 간단히 조립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단순해 보이지만 고주파 신호의 전송을 손실 없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 초정밀기술이 집약된 High-Tech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동사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른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고객사의 요구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며,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매출 변동성 위험이 낮은 편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 기술개발 및 기초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현장 기술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 기술 개선 프로젝트, 새로운 시장 선도 기술 프로젝트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 내부 R&D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림 4] 미래의 무한 경쟁을 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출처: 텔콘RF제약 RF 사업 부문 홈페이지(http://www.telcon-rf.com/)

[표 9] 연구개발 투자비율 및 활동 현황

(K-IFRS 별도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연구개발비용	3,800	1,710	872	834
매출액	57,708	56,690	32,555	15,287
연구개발 투자비율	6.59%	3.02%	2.68%	5.46%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201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개발 1부(개발 1팀, 개발 2팀), 연구개발 2부 개발팀으로 구성되고, 상세하게는 RF 사업 부문의 경우 Component 개발팀, System 개발팀으로 구성되며, 제약 및 바

이오사업 부문의 경우 개발팀, 제제 팀으로 구성된다.

(1) 연구개발 1부 – 개발 1팀

시스템 내/외부의 Port 용 커넥터(Connector) 및 Port to port 용 케이블 어셈블리(Cable Assembly) 개발에 중점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외에 상용화된 통신시스템과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는 LTE, AWS, 3GPP 등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들인 RRH(Radio Remote Head) 또는 RRU(Radio Remote Unit) 등과 같은 이동통신용 중계 장치의 내부와 외부에서, 각 Port를 구성하는 Connector, Port와 Port를 연결하여 신호(RF Power 및 Signal)의 전송을 하는 커넥터 어셈블리 등을 개발하고 있다.

(2) 연구개발 1부 – 개발 2팀

광 Cable 및 Connector의 Solution을 확보하여, 개발, 제조 및 판매 중이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갖추기 위하여 제품개발과 Line up 구성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서비스 예정인 진보된 5G 및 항공, 선박, 위성용 커넥터, 케이블 어셈블리(Cable Assembly)의 기술 선점과 시장 진출을 위하여 높은 신뢰성과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시스템 요구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High Frequency 용 커넥터 및 커넥터 어셈블리 솔루션 기술을 확보하여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하여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3) 연구개발 2부 개발팀

이동통신 공사용 RF Module, RF Hybrid Module, DAS용 Module, DAS용 Unit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및 중계 장치의 입출력 신호가 정상적으로 입출력되는지 확인하는 Directional Coupler, 인 빌딩 시스템의 신호분배에 주로 사용되는 Power Divider를 연구하고 있다.

낙뢰로부터 기지국 또는 중계 장치를 보호하는 Surge Arrestor, Multi Carrier 사용에 따른 각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를 합성하기 위한 Hybrid Combiner, RF 신호 감쇄를 위한 Attenuator, RF 신호를 흡수하여 열로 소진하는 Termination 등 RF Module 개발과 신규 사업 분야로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용 Unit을 연구하고 있다.

[표 10] 주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

과제명	주관부처	연구기간	연구결과
5G 보급화를 위한 프런트 홀용 분리형 광, 전 복합 케이블 및 분기 박스의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9.10.01. ~ 2020.09.30	완료

과제명	5G 보급화를 위한 프런트 홀용 분리형 광, 전 복합 케이블 및 분기 박스의 개발
연구내용	1) DC 18V 이하의 전압강하 보상을 위한 전원 케이블 배열 기술 정립 및 개발 2) 24F MT Ferrule 적용을 위한 페룰 경화 및 연마 기술개발 3) 8C/24F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커넥터 회전 구조 기술 4) 외부 환경을 고려한 인장력 강화 구조 및 녹 방지를 위한 도금 기술 정립
기대효과	본 제품은 향후 5G 망의 프런트 홀 분야의 전체 전 세계 시장 기술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최종 고객사인 호주 이동통신업체 A 사에 최초로 적용될 전망임.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표 11] 주요 자체 연구개발 실적

RF 부문 연구개발 실적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	연구과제명	Multi port RF cable assembly
		용도	모뎀 또는 소형 중계기, 안테나 간 RF 신호 전달 및 전원 소스 공급선로
		특징	RF 신호와 전원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커넥터 및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형모듈에 장착돼야 하기에 소형화된 멀티 커넥터
	2	연구과제명	STBM Connectors
		용도	소형 기판 대기판용 블라인드 커넥터
		특징	TBM 커넥터의 소형화 타입으로 차량 간 통신 모듈과 같은 초소형 통신 모듈에 적합한 커넥터
	3	연구과제명	mmWAVE Connectors
		용도	초고주파용 커넥터
		특징	40GHz 대역을 수용하는 3.5mm, 2.92mm Adaptor 및 케이블 어셈블리 65GHz 대역을 수용하는 3.5mm, 2.92mm, 1.85mm 기판용 커넥터 65GHz 대역을 수용하는 1.85mm 아답터
	4	연구과제명	Push Pull Optical connectors (MOC and HCC, PCC)
		용도	기지국 부품(FTTA, HTTA) 다중 광 커넥터, 광전 커넥터, 파워 커넥터
		특징	Push/pull coupliung mechanism을 기반으로 한 커넥터로 체결 분리가 간편, 용이하여 타워 설치공사에 최적화된 커넥터
	5	연구과제명	Point Of Interface
		용도	다수의 통신사업자 신호를 결합하여 출력하여 주는 장치
		특징	빌딩 등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과도한 트래픽(Traffic) 분산을 위하여 사용되며 높은 PIMD 규격을 만족하여 통화품질을 향상시키는 장치. 다수 입력에 단일 출력으로 시설 공사가 용이함.
	6	연구과제명	3.6GHz 2, 3, 4Way 분배장치
		용도	하나의 신호를 다수로 분기하는 인 빌딩 공사용 자재
		특징	일본 Wi-Max2 상용화에 대응하여 선행 개발하여 시장선점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파생모델을 개발하여 일본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인 제품임.
	7	연구과제명	New HTTA solution
		용도	5G 기지국 설치용 HTTA
		특징	통신 트래픽 해결을 위한 중계기 확장용 HTTA solution, 현재 호주 1위 사업자인 텔스트라 4G 증축, 5G 신규사업의 솔루션으로 선정되어 2020년 상반기부터 공급 진행 중임.
	8	연구과제명	5G Passive Module
		용도	5G In-Building 공사용 설치 자재
		특징	800~3900MHz의 광대역 특성을 갖는 공사용 설치 자재이며, Directional Coupler, Wilkinson Divider, T&U Junction 등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In-Building 공사를 통하여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Coverage 확장에 사용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Ⅳ. 재무분석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실적 큰 폭 감소, 제약/바이오 부문 성장 동력 확보 중

동사가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 감소와 더불어 적자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RF사업 부문에서 고객 니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백업능력 제고 및 차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가고 있다.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이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 큰 폭 감소 및 적자 지속중이나 사업 비전 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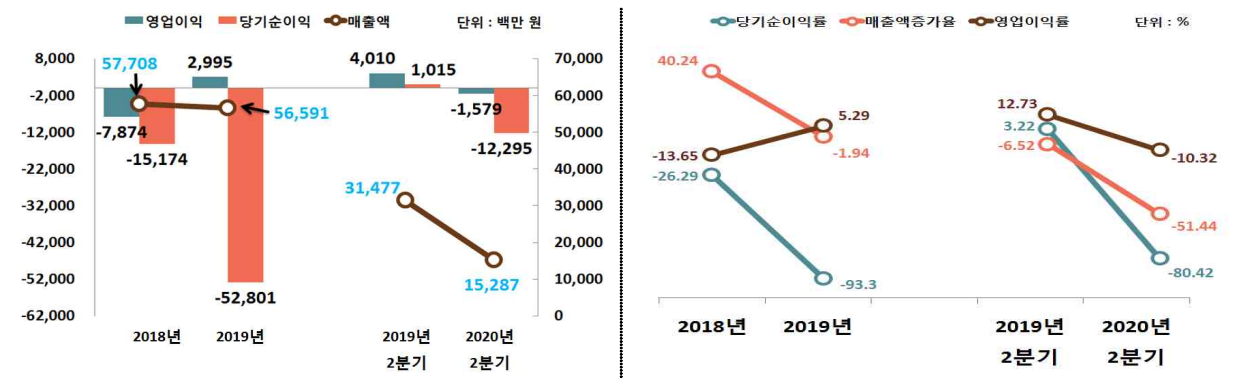
동사의 2020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5,287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31,477백만 원) 대비 80.42% 감소하였고, 영업손실 1,579백만 원, 당기순손실 12,295백만 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2019년 상반기) 대비 영업손실은 5,589백만 원 감소하였고(2018년 3분기 이후 영업적자 재전환), 당기순이익은 13,310백만 원 감소하였다.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것은 RF사업 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로 매출원가 상승하였고 판관비(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외) 증가와 맞물려 영업적자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영업외손실(영업권 손상차손, 관계기업투자 처분손실, 금융자산평가손실, 사채상환손실 등)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12,295백만 원(당기순이익률 (-)80.42%)에 달하고 있다.

동사가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 감소와 더불어 적자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RF사업 부문에서 고객 니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백업능력 제고 및 차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가고 있다.

또한, 제약/바이오사업 부문에서 전국적 판매망을 통한 판매 네트워크 및 신제품 개발 관련 생산능력 시스템 구축하여 종합 제약/바이오 업체로서의 구조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적 회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 원가 및 판관비 절감, 관계부담 완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시켜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동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 성장세 지속 후 최근 하락세,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개선 가능성

동사 2016년 이후 최근 3개년 성장세 지속되다가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42% 감소하였고, 수익성 취약하여 적자 지속중이다.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이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2019년 말 현금성 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현금흐름 개선 가능성이 있다.

■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증가세, 하지만 수익성 취약하여 적자 지속 중

동사 RF사업 부문과 제약/바이오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인해 최근 3개년 매출액이 2017년 41,149백만 원, 2018년 57,708백만 원, 2019년 56,591백만 원으로 성장세 이어가고 있던 중, RF사업 부문(케이블 어셈블리, 커넥터 외)의 매출 급감하며 2020년 상반기 매출액(15,287백만 원)이 전년 동기 매출액(31,477백만 원) 대비 80.42% 감소하였다.

2018년도까지 영업적자 및 당기손순실 지속되다가 원가 및 판관비 절감,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도 영업흑자 전환(영업이익률 5.29%)하였기는 하나 대규모 영업외손실(유/무형자산 손상차손,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금융자산평가손실 등)로 인해 2019년도 당기순손실 52,801백만 원(당기순이익률 (-)93.30%) 발생하여 최근 3년 적자규모가 최대치에 달한다.

■ 최근 3개년 누적결손금 증가, 하지만 재무안정성 개선 중

동사는 주력사업으로 RF사업 부문(무선통신장비용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등 제조)과 제약/바이오사업 부문(의약품 제조 및 신약개발 투자 등)을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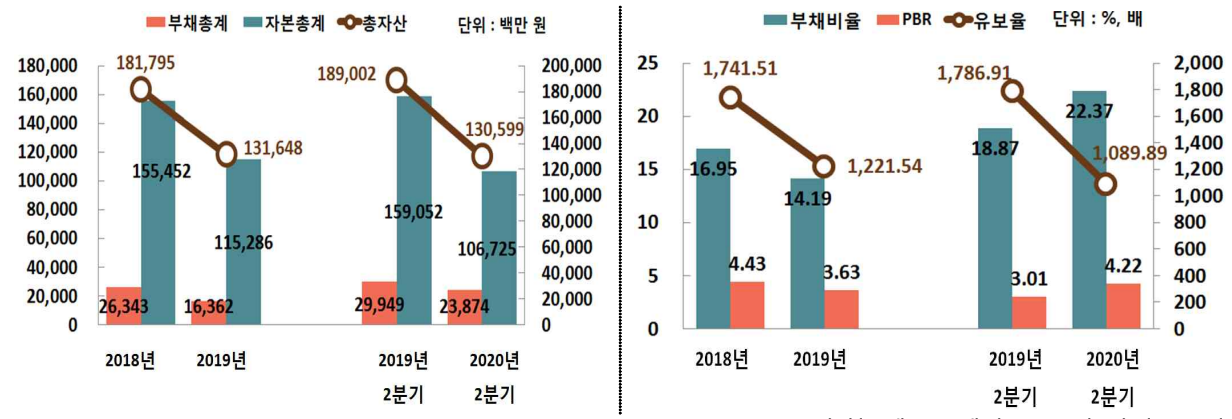
동사는 RF사업 부문을 주축으로 2016년 29,840백만 원에서 2019년 56,591백만 원으로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였기는 하나 동업계 특성상 높은 매출원가 및 판관비 비중과 경상연구개발비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성 취약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최근 4개년 적자 지속되고 있다.

동사의 영업손실은 2018년 7,874백만 원에서 판관비 절감,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도 일시적으로 영업흑자 전환(영업이익 2,995백만 원)하였기는 하나 대규모 영업외손실(유/무형자산 손상차손,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금융자산평가손실 등)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2018년 15,174백만 원에서 2019년 52,801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2019년 말 누적결손금이 60,158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0년 상반기 부채비율은 2017년 55.87%, 2018년 16.95%, 2019년 14.19%, 2020년 2분기 말 22.36%이며, 최근 3개년 및 2020년 상반기 자기자본비율도 2017년 64.15%, 2018년 85.50%, 2019년 87.57%, 2020년 2분기 말 81.71%로, 다소의 변동성은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이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0년 2분기 사업보고서상 설비 신설 및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계획이 없기는 하나 RF사업 부문의 매출이 급감하며 2020년 상반기 매출액(15,287백만 원)이 전년 동기 매출액(31,477백만 원) 대비 80.42% 감소하여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누적결손금 증가로 이어져서 재무구조 개선에도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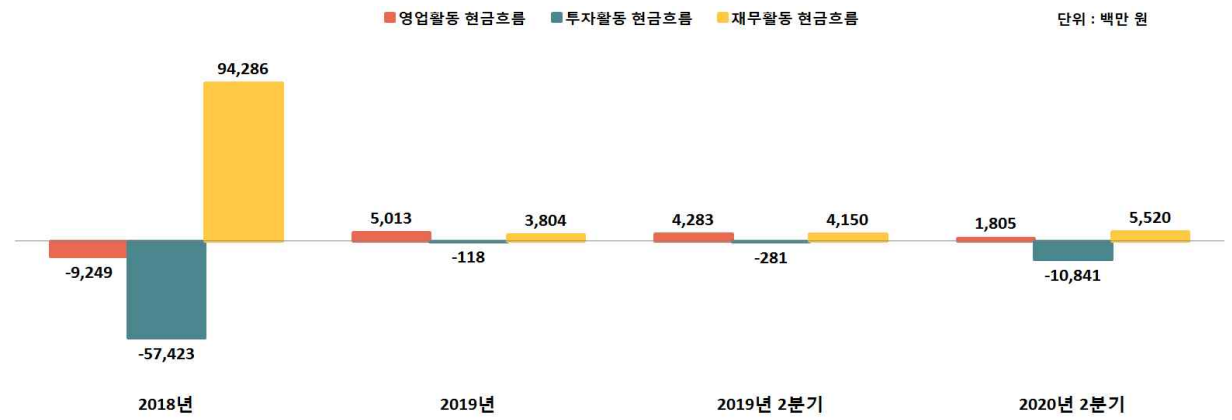
■ 투자활동 축소를 통해 현금성 자산 증가, 하지만 현금창출능력 다소 미흡

2019년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5,013백만 원)은 전년(−9,249백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영업이익(2,995백만 원)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2019년도 영업이익 시현과 더불어 금융자산평가손실 등 비 현금 항목의 조정 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투자활동에서는 2018년도에 대규모 발생했던 '단기금융상품 및 유/무형자산 취득' 등의 감소로 인해 투자활동현금유출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투자활동현금흐름 −118백만 원), 전환사채 발행, 장기차입금 증가, 주식선택권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등의 재무활동을 통해(재무활동현금흐름 3,804백만 원) 2019년 말 현금성 자산(15,728백만 원)이 2018년 말 현금성 자산(7,239백만 원) 대비 8,489백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 2분기 말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1,805백만 원)이 양(+)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환사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무활동현금흐름(5,520백만 원)도 양(+)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자산 취득으로 인해 투자활동현금흐름(10,841백만 원)이 부(−)로 전환하면서 2020년 2분기 말 현금성 자산(12,174백만 원)이 2019년 말 대비 3,554백만 원 감소하여 현금창출능력 개선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텔콘RF제약 2020년 반기보고서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 발표 및 COVID-19 치료제 개발 기대감 증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COVID-19로 주춤해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RF 사업 부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머니젠과 COVID-19 치료제 렌질루맙에 대한 개발 및 상업적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5G, 6G 투자계획 발표에 따른 동사 수요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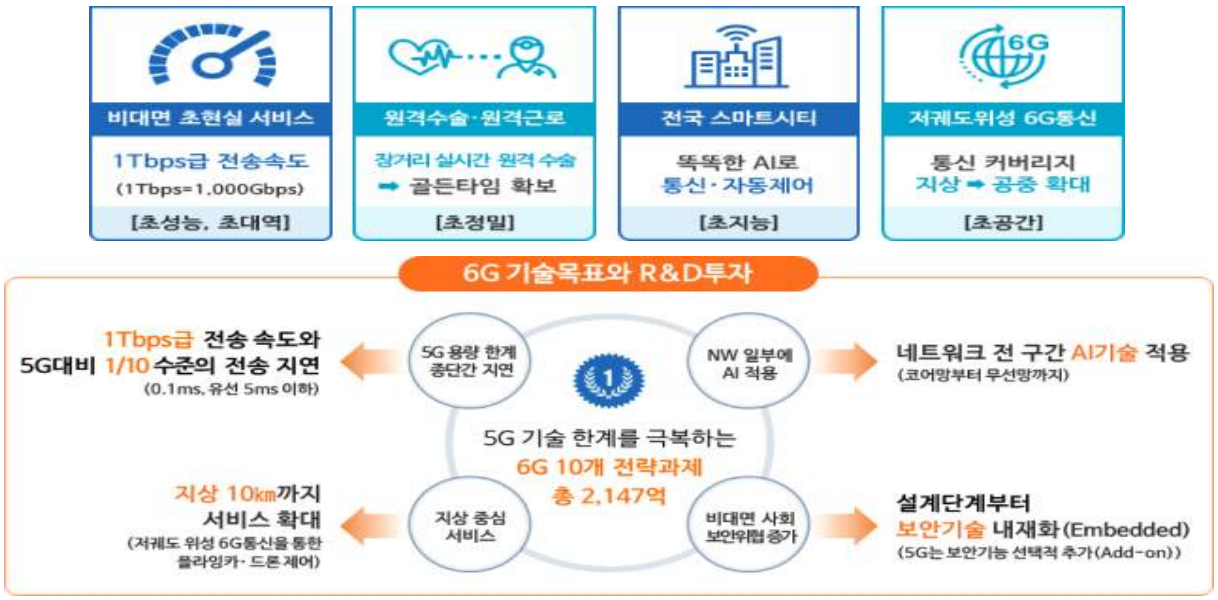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COVID-19로 주춤해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되어 있다. D.N.A 생태계 강화는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의 가속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38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2020년 3월 정보·융합·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기건(신형인프라 건설) 정책을 통해 AI,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약 5,9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일본은 2020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Beyond 5G 추진전략을 모든 분야의 지역에 5G가 도입될 수 있도록 5G 기지국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5년간 6G 기술개발, 국제표준, 연구 및 산업기반 조성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더불어 스마트폰, 기지국 장비 등 관련 산업 경쟁력 또한 글로벌 수위권을 유지케 한다는 전략이다.

[그림 8] 6G 개요(위) 및 R&D 투자계획(아래)



*출처: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준비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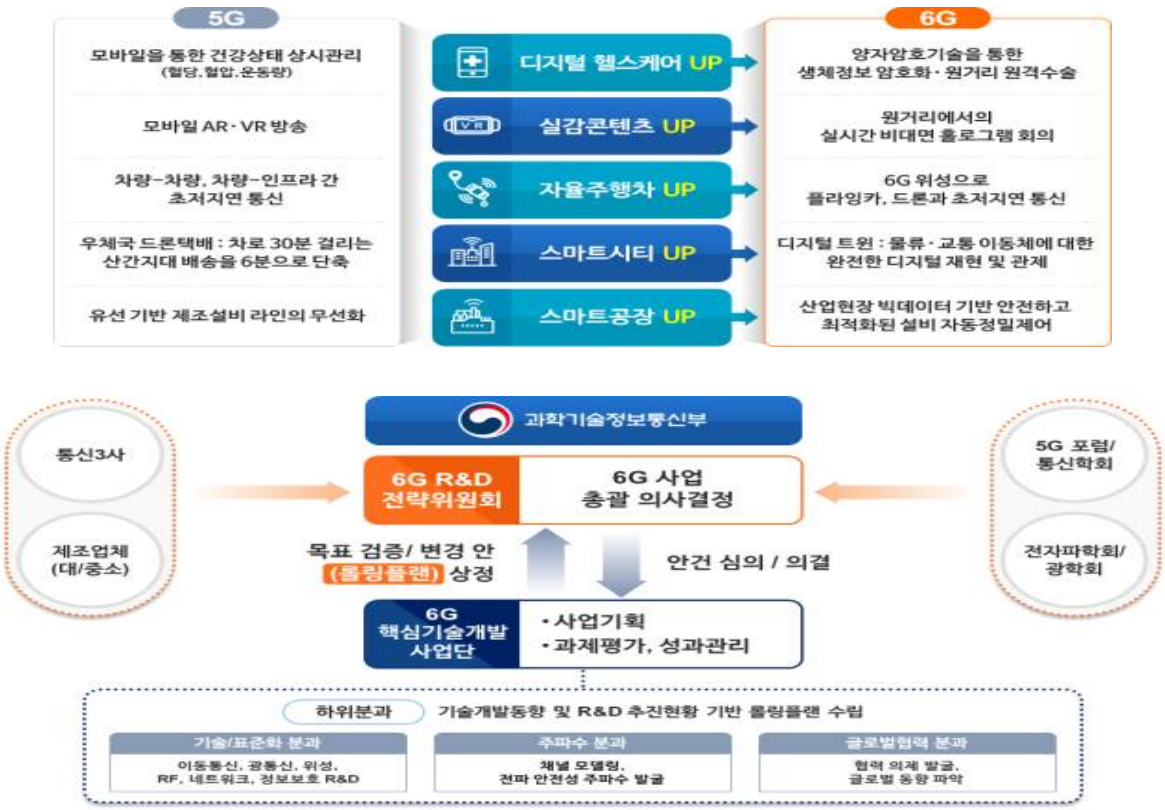
6G 기술은 1T bps 급 전송 속도,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공중 10km까지 확대된 통신 커버리지 등 5G를 뛰어넘는 기술적 진화를 통해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 자율 주행차 · 플라잉 카 등 고도화된 융합서비스의 대중화가 가능(2028~2030년경 상용화 예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6G 통신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 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큰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R&D · 특허 · 표준 전문가 협의체 및 전략 맵을 구축한다. 6G R&D 사업 추진 맵은 산학연관 참여 '6G R&D 전략위원회' 를 구성하여 사업 기획 및 성과 공유,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사업 목표 검증 · 조정(롤링플랜※) 등 추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6세대 이동통신의 중점분야는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지능, 초공간, 초신뢰로서 1Tbps 전송 속도를 실현할 100GHz 이상 고 대역 주파수 대역 활용이 목표이다. 고출력(기지국 17dBm, 단말 10dBm), 저 잡음(잡음지수 10dB) 전력 증폭기 등 100GHz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기지국 단말기용 RF 부품기술 개발에 정부는 14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Upgrade 시범사업 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9] 6G-Upgrade 시범사업 예시(위) 및 6G R&D 사업 추진 전략맵(아래)



*출처: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준비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 표준화, 시장 요구사항 등 외재적 변화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3년 후 사업 방향의 일부 재설정이 가능한 2단계 롤링플랜 방식 도입 : 1단계(3년)+2단계(2년)

■ 휴머니젠과 COVID-19 치료제 국내 · 필리핀 판권계약

동사는 케이피엠테크와 함께 11월 3일 휴머니젠(Humanigen)과 렌질루맙(Lenzilumab)에 대한 개발 및 상업적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선스 확보 지역은 국내 및 필리핀에 해당된다. 라이선스 금액은 총 2,000만 달러로 케이피엠테크와 동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미국계 신약개발 회사 휴마니젠(Humanigen Inc)의 주요 사업 분야는 면역항암제 치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억제하는 신약을 연구,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며, 현재 COVID-19의 세계 대유행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GM-CFS 중화 기술을 적용하여 COVID-19에 의한 폐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면역 항암제로 알려진 CAR-T 요법 및 자가 및 동종 세포 이식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다른 T-세포 관여 요법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신약개발 전문회사이다.

계약금은 600만 달러로 1차 잔금 600만 달러는 미국 임상 3상 성공이 미국증권거래소에 공표될 때 지급하고, 2차 잔금은 800만 달러는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EUA) 또는 신약승인(NDA) 완료 시 지급하는 마일스톤(Milestone, 전 임상 → 임상 → 허가신청 → 허가 완료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 시 받게 되는 금액) 계약이다. 임상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가 임상 3상 성공할 때까지 동사 및 케이피엠테크에 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 COVID-19 치료제 렌질루맙(Lenzilumab) 긴급 임상 3상 진행 중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휴마니젠의 COVID-19 치료제는 '렌질루맙'으로 유전공학을 통해 변형된 인간 유래 IgG1(면역글로불린 G1) 항체이고 first in class 약물이다. 렌질루맙은 COVID-19 환자에게서 엄청나게 증가된 GM-CSF※를 중화시키는 단일 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주사제이다. 렌질루맙의 임상 3상 시험은 글로벌 임상시험 전문 기관인 CTI(Clinical Trial and Consulting Services)와 협업하여 미국 내 최고의 임상센터 및 임상의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5월 6일 임상 3상 시험의 첫 번째 환자에게 투여됐다.

원래 렌질루맙은 길리어드 자회사인 Kite Pharma와 함께 CAR-T 치료(면역항암제) 중에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점을 COVID-19에 의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용으로 확장하였고 적응증 확대를 통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임상 1/2 상의 모든 자료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었다.

휴마니젠은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다양한 임상 치료 응용 분야에서 수년간의 전문 지식을 쌓아 왔으며, 2017년부터는 카이트(Kite, 길리어드(COVID-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개발 회사)의 자회사)와 함께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였고, 미국 혈액학 협회(ASH) 2017에서 발표 및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 GM-CSF(granulocyte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 : 대식세포, T-세포, 비만 세포, NK세포, 내피세포, 섬유아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단백질. 대식세포의 수를 급격히 늘려 감염반응과 대항할 수 있어 면역 감염반응의 일부로 작용함.

▶ COVID-19(코로나-19) 상식

COVID-19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SARS-CoV-3에 의한 전염병이다. COVID-19의 세계 대유행에서 주요 사망 원인은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RDS는 인간의 허파에 생긴 급성 염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호흡부전이다.

이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폐포 모세혈관 막의 투과성이 증가해 폐포 공간 내로 액체가 유출되고, 저산소 혈증 및 염증성 급성 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ARDS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빈맥, 새파랗게 질린 피부색 등이 있습니다.

ARDS는 증상에서 회복하더라도 숨이 계속해서 차는 것과 같이 삶의 질 저하가 흔한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토카인 폭풍' 으로 불리는 과도한 면역반응은 폐에 극심한 손상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렌질루맙은 COVID-19에 의해 발생된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약물이고 GM-CFS 중화 기술을 적용하여 폐 손상 치료에 대한 미국 FDA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 중증 COVID-19 환자 대상 렌질루맙(Lenzilumab) 효과 분석

렌질루맙의 평균 회복 시간은 5일로 유사한 환자 그룹에서 렘디시비르가 10일을 보낸 것에 비해 빠른 회복 시간을 확인하였다. 2020년 6월 16일 휴마니젠(Humanigen, Inc.)은 렌질루맙(Lenzilumab)로 치료된 환자 12명의 치료결과를 렘데시비르(remdesivir)로 치료된 환자와 비교하여 2차 분석을 수행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렌질루맙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중간 개선 시간 5일, 중간 회복 시간 5일로 임상 개선 보였으나, 렘데시비르는 10~11일의 중간 개선 시간, 10~11일의 중간 회복 시간을 보였다.

[그림 10] 렌질루맙(Lenzilumab)과 렘데시비르(remdesivir)의 효과 비교 분석

환자 기준 특성, 치료 기간(일)	1day Lenzilumab	5day Remdesivir	10day Remdesivir
중위 연령(IQR)	65 (52-70)	61 (50-69)	62 (50-71)
수(%)	67%	60%	68%
Race (%)			
화이트	75%	71%	70%
블랙	0%	10%	12%
아시아	17%	10%	13%
기타	8%	8%	5%
중위 수 BMI(IQR)	29 (24-36)	29 (25-34)	29 (25-33)
Comorbidities			
당뇨	58%	24%	22%
고혈압	58%	50%	50%
전식	8%	14%	11%
산소 공급 여부			
간헐적 강제 호흡	-	2%	5%
고유량 또는 NIPPV	33%	24%	30%
Low-Flow	67%	56%	54%
외기, 주변 공기	0%	17%	11%
첫번째 투약 전 입원 기간의 평균 일(IQR)	2 (1-4)	2 (1-3)	2 (1-3)
임상 결과 측정			
개선 시간 중위 수	5	10	11
복구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5	10	11
임상 개선 14일차	100%	64%	54%

*출처: 텔콘RF제약 홈페이지(http://www.telcon.co.kr/), 휴머니젠 홈페이지(https://www.humanigen.com/)

※ Cytokine Storm :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로 정상 세포들의 DNA가 변형되면서 2차 감염 증상이 일어나는 반응을 말함. 이 현상은 과거 스페인 독감 ·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유행할 때 높은 사망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음.

▶ 렌질루맙(Lenzilumab)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결과

렌질루맙에 대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내용(CUP, compassionate use program)은 아래와 같다. 동정적 사용이란 생명을 위협하고 장기간 또는 중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포기할 상황에 이를 경우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치료제들을 공급해 치료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Mayo Clinics 에서 COPID 19 전문가 센터를 대상으로 CUP 수행

1) 병원 시스템, 즉 COVID-19 TF 리더 및 수석 의사의 후원

2) 임상 3상 참가자와 유사한 환자 특성

(2) 12명의 환자에게 렌질루맙 투여 후 11명이 병원에서 퇴원

1) 4명의 환자 : 렌질루맙을 투여받기 전 중환자실(ICU)에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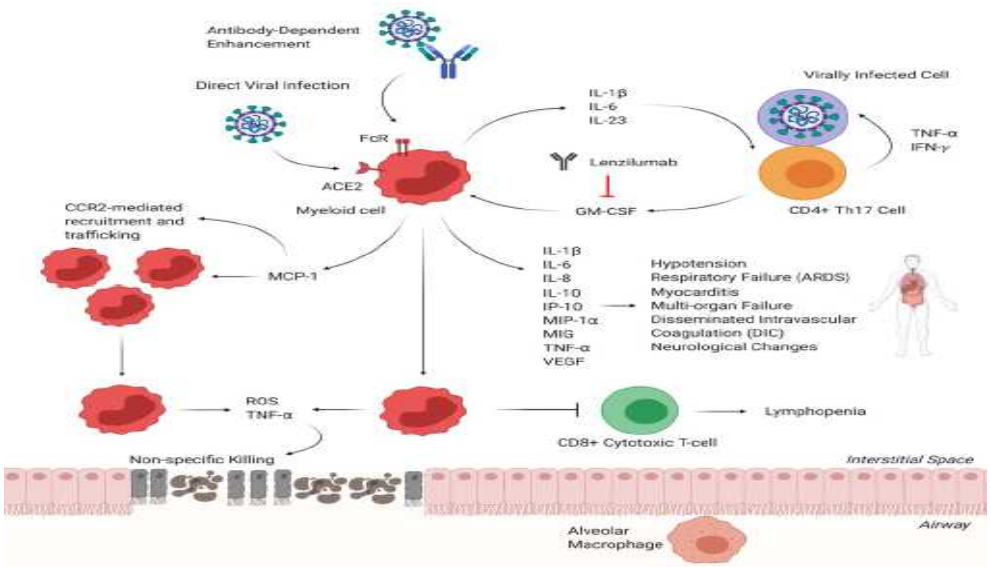
2) 모든 환자는 심각한 병적 상태를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 더 중증인 환자도 있었음

3) 이번 임상시험은 Mayo Clinic 시스템에 COVID-19의 의해 폐렴이 심하거나 심각한 상태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폐렴 이외의 추가 질병 진행의 위험이 큰 것으로 여겨졌다. 모든 환자는 산소 치료가 필요했고 렌질루맙을 투여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염증성 바이오 마커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환자는 COVID-19에서 심각한 상태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공통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몇몇 환자는 다양한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율로 보면 58%는 당뇨병, 58%는 고혈압, 58%는 근본적인 폐 질환, 50%는 비만이었다. 17%는 만성 신장 질환을, 17%는 관상 동맥 질환이 있었다. 평균 연령은 65세였다.

4) 12 명의 환자 중 11명은 렌질루맙 투여 후 며칠 내에 확연한 임상적 개선을 보였으며, 몇몇 환자는 렌질루맙 투여 후 이른 시일 안에 퇴원하였다.

[그림 11] 렌질루맙(Lenzilumab) 약물 메커니즘



*출처: First Clinical Use of Lenzilumab to Neutralize GM-CSF in Patients with Severe and Critical COVID-19 Pneumonia, medRxiv Journal

■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 장벽 구축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모방 방어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31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동사의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허권으로 제품의 구조, 공정, 구현 방법 등에 관해 명확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제품을 모방하려는 경쟁사에게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주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01	접촉단자 및 이를 이용한 접촉식 커넥터	10-2087869	20.03.05.
02	안테나 장치	10-2080771	20.02.18.
03	대기압 플라즈마 발생기의 전력공급장치	10-2043973	19.11.06.
04	평면 접촉형 알에프 단자	10-2037689	19.10.23.
05	동축 커넥터	10-1992258	19.06.18.
06	회전이 가능한 커넥터	10-1965712	19.03.29.
07	멀티 포트 케이블 터미널	10-1869764	18.06.15.
08	특성 임피던스 부정합 방지용 커넥터	10-1783622	17.09.26.
09	광 커넥터	10-1716872	17.03.09.
10	통신용 커넥터	10-1715337	17.03.06.

*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3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

[그림 12] 텔콘RF제약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 금융(2020.11.20.)